

폭력중단 합의에도...미얀마 군경 총격

실탄 쏘고 체포·구금 이어져

아세안 정상회의 합의 불구

군부, 무자비한 폭력 계속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폭력 중단'에 합의 했음에도 군경의 실탄 발포와 체포, 구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국제사회에 '폭력 중단'을 약속했지만, 소용없다며 SNS에 현지 상황을 잇달아 고발하고 있다.

26일 트위터에서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 (#WhatsHappeningInMyanmar) 해시태그로 검색해보면 아세안 정상회의 합의 다음 날인 25일에도 미얀마에서 폭력이 이어졌음을 증언하는 게시

물을 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다웨이에서 전날 군경이 반 쿠데타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포했고, 한 남성이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 쓰러지자 군경이 끌고 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군경이 몰려다니는 사진과 함께 "민가에 새총을 쏘 유리창을 파손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얀마 사태에 관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24일 당일 만달레이에서 한 청년이 군경의 총에 맞아 숨지고, 수도 네피도에서도 시위 진압 도중 50세 시민이 사살됐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전 세계 언론이 살인자 수장(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관심을 주고 있을 때 군경은 만달레이에서 보이는 대로 총을 쏘다"며 부상 부위에서 빼낸 총알 사진을 공개했다.

약대에 다니는 남자 대학생과 아버지가 양곤의 집에서 25일 오후 10시경 군경에 의해 체포당했다

는 증언도 나왔다. 이들 부자가 어떤 혐의로, 어디에 끌려갔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유되지 않았다.

같은 날 또 다른 미얀마 시민 3명이 군경에 체포돼 끌려가는 사진도 공개됐다. 미얀마 시민들은 폭력중단 합의 다음 날인 25일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25일 쿠데타 상황' (#Apr25Coup)이란 해시태그를 게시물에 붙였다. 몽유와에서 의료인 4명이 군인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군부가 계속 테러를 자행한다면 아세안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이번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총선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킨 뒤 시민 751명이 군경의 발포와 폭력에 숨졌고, 4400여명이 체포됐다. /연합뉴스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25일(현지시간) 신부와 수녀들이 대규모 유혈 사태가 빚어진 미얀마의 국기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세요'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 이후 군경의 유혈진압으로 지금까지 748명이 숨지고 3389명이 구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아세안 미얀마 합의에 ‘정치범 석방’ 포함됐다가 빠져”

즉각적 폭력 중단 등 5개항 담겨

국제 인권단체 “이번 합의 성과 없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채택한 합의문에 당초 국제사회의 핵심 요구사항인 '정치범 석방'이 포함됐다가 마지막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합의문 작성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난 24일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하루 전에 만들어진 합의문 초안에는 정치범 석방이 포함됐

었다. 그러나 정상회의가 끝난 뒤 나온 최종 문안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정치범 석방에 대한 강한 요구를 담지 못했고 내용도 희석됐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 관계자들은 "언제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외교부는 합의문 작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된 합의문은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

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와 미얀마의 반군부 저항세력이 요구해온 조속한 정치범 석방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단지 5개 합의 사항과는 별도로 정치범 석방에 관해서 "요구를 들고 있다"고만 표현했을 뿐이다.

이에 국제 인권단체들과 미얀마 반군부 저항 세력은 이번 합의가 군부를 제어하는데 있어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범 석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나사 화성 헬기 3차 시험비행도 성공

50m 이동 뒤 복귀 80초간 비행

항로 유지 자동항법장치 시험

미국의 화성 헬기 '인저뉴어티'(Ingenuity)가 25일 더 멀리, 더 빨리 날며 3차 시험비행에도 성공했다.

이번에는 2차 비행 때와 같은 16피트(4.8m) 높이로 날아올라 49.2m를 비행한 뒤 다시 이륙 장소로 돌아왔다. 약 80초간 100m 가까이 비행하며 최대 초속 1.98m를 기록했다.

UPI통신과 BBC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비행에서 인저뉴어티는 지상의 지형지물을 카메라로 기록하고 비교해 항로를 유지하는 자동항법 시스템을 시험했다. 멀리 날수록 더 많은 이미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날면 사진 위치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인저뉴어티 프로젝트 매니저 미미 아웅은 "카메라 알고리즘이 먼거리 비행에서도 작동하는

지를 처음으로 시험한 것"이라면서 "이는 (화성 조건을 갖춘 지구의) 실험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는 성명을 통해 인저뉴어티가 더 멀리, 더 빨리 날며 "새로운 기록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다"면서 "우주 헬기는 화성과 그 너머에서 진행될 우주 임무에서 항공 탐사를 추가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인저뉴어티는 지난 19일 첫 시험비행에서 3m 높이로 날아올라 39.1초 동안 제자리 비행을 하며 지구 밖 행성에서 첫 동력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22일 2차 시험비행 때는 4.8m 높이에서 초속 0.5m로 약 2.1m 가량 이동하는 등 51.9초간 비행을 했다.

인저뉴어티는 앞으로 두 차례 더 시험비행을 남겨 놓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헬기의 최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체가 추락할 수도 있는 한계 비행에 도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작업 시작

“기지·장비 아프간군에 이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6일 로이터통신,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코트 밀러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전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이 철군 과정의 일환으로 현지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철군 개시 통보 날짜는 5월 1일이 되겠지만 관련 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사령관은 "우리는 질서 있게 철수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기지와 장비를 아프간 보안군에게 이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의 민간 지원 인력 1만8000명도 대부분 철수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인력은 현지에서 치안, 물류, 항공기 정비 등의 임무를 맡아왔다.

밀러 사령관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아프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방침을 밝힌 지 열흘여 만에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을 다음 달 1일 시작해 9월 11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한 때 최대 10만 명까지 증파됐던 미군은 현재 250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NATO 병력은 약 7000명이다.

밀러 사령관은 미군 철수 후 현지 치안은 이제 아프간 정부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아프간 보안군이 미군의 공백에도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내시지는 늘 같이라며 "그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100일 '지지 과반' 여론조사 잇따라

82% “국가 여전히 분리”

취임 100일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0%가 넘는다는 미 여론조사 잇따르고 있다.

NBC뉴스가 17~20일 미국 성인 1000 명을 상대로 조사(오차범위 ±3.1%)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0%, 무당층에서는 61%가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9%만이 그렇다고 해 지지 정당에 따른 입장이 극명했다. 전체 응답자의 39%는 바이든 대통령

의 직무수행을 지지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취임 100일 지지율은 같은 시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0%)보다는 높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61%)보다는 낮았다고 NBC는 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통합 노력에 대해 과반의 지지에도 여전히 국가가 분열돼 있다고 답한 사람은 82%에 달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18~21일 성인 1007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오차범위 ±3.5%)도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지지율은 52%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42%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연합뉴스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